

황강 사상정치과목 및 전문 당수업 강의 시 강조

반석같은 이상 신념 신앙 다지고 새 로정에서 힘써 청춘을 꽃피워야

6월 27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중국공산당 창건 104 주년을 맞이하여 길림대학에서 광범한 사생들에게 사상정치과목을 강의함과 아울러 당원 간부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 심입 관철 학습교양을 돌려 싸고 전문 당수업을 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부 시중 명기하고 반석같은 이상, 신념과 신앙을 다지며 시대가 부여한 책임과 사명을 견결히 어깨에 짊어지고 새 로정에서 청춘을 힘써 꽃피우기를 광범한 청년들에게 바랐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맑스주의에 대한 신앙,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영혼이며 공산당원이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는 정신적 지주이다. 중국공산당은 바로 반석처럼 확고한 이상, 신념과 신앙을 갖고 있기에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백번 단련되어 강철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으며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갈 수 있었다.

황강은 《공산당선언》이 우리 나라에서 100년 동안 전파된 과정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리의 힘은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해진다. 17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맑스주의는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천의 발전에 따라 더욱 진리의 빛을 발하며 새시대에 계속하여 우리를 이끌고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의 위

력을 깊이 깨닫고 이를 새 로정에서 분발전진하는 강대한 정신력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 황강은 장정의 길에서 첩첩한 포위를 돌파하고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이 얼음과 눈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인민군대가 사평에서 4번 전투를 벌이고 지원군이 항미월조 전쟁터에서 국가의 위명과 군대의 위망을 떨치고 오대징 등 민족영웅들이 신성한 국토를 수호한 등 다섯가지 이야기를 돌려싸고 사생들과 함께 역사를 되새겨보았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정길에서의 고난과 휘황함, 굶는 피와 영광은 그 어떤 적들에게도 압도당하지 않고 그 어떤 곤난에도 정복되지 않는 흥군 장병들의 영웅적 기개와 혁명정신을 보여주었고 세인들에게 중국공산당원들의 의지는 난공불락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였다. 양정우 등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이 조국의 변방에서 외롭게 투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없이 확고한 마음속 신념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간고하기 그지없는 장정과 항일전쟁에서부터 해방전쟁과 항미월조전쟁에 이르기까지 혁명렬사들의 선혈이 혁명의 성공을 이룩했다. 100여년이 지났지만 젊음이 한창이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장대해졌는데 이런 역사와 현실은 중국공산당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과 정확함을 반복적으로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명할 것이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작풍은 이상과 신념, 신앙의 구체적 인 구현이다. 중국공산당은 장기적 인 혁명과 건설, 개혁 실천에서 리론으로 실재를 련계하고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는 등 우수한 작풍을 형성하고 견지하고 발양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를 세세대대로 전승하고 고양해야 한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중앙 8항 규정을 제정하고 시달하는 데로부터 첫발을 내디디고 당 내부에 관통된 림장·관점·방법을 잘 학습하고 운용하여 큰 포부와 원대한 꿈을 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능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귀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공부하며 철학·역사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실천 속에서 근골을 튼튼히 하고 재능을 기르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동량지재가 되어야 한다. 시대의 책임을 용감하게 짊어지고 '인재가 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신념을 수립하며 태도는 현실적이고 정신은 충실하며 사업은 착실해야 하는바 먼저 취업하고 후에 직업을 선택하고 나중에 창업하며 기층 일선과 간고한 지역에 가서 단련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일하는 분투자가 되어야 한다.

성 지도자등인 오해영과 리위, 길림대학 당위 서기 전취, 교장 장희, 중앙과 성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 동북사범대학, 성 직속 대학교 당위 서기, 길림대학 지도부 성원과 사생 대표, 성당위 정책연구실 경제 1처 당지부 당원 등이 활동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중국공산당 당원 총수 1억명 넘었다!

중국중앙 조직부 <중국공산당 당내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국공산당 당원 총수는 10,027.1만명으로 2023년말보다 108.6만명, 1.1% 증가했다.

현재 중국공산당 기층 조직은 525만개로 2023년말보다 7.4만개, 1.4% 증가했다. 그중에서 기층 당위는 30.6만개, 총지부는 33만개, 지부는 461.1만개이다.

1. 당원대외 상황
당원의 성별, 민족과 학력, 여성 당원은 3,099.5만명으로 전체 당원의 30.9%를 차지한다. 소수민족 당원은 773.4만명으로 7.7%,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당원은 5,778.6만명으로 57.6%를 차지한다.

당원의 나이. 30세 이하 당원이 1,227.2만명, 31세—35세 당원이 1,076.4만명, 36세—40세 당원이 1,147.5만명, 41세—45세 당원이 968.7만명, 46세—50세 당원이 904.1만명, 51세—55세 당원이 941.2만명, 56세—60세 당원이 864.6만명, 61세 이상 당원이 2,897.3만명이다.

당원의 입당 시간. 새 중국 창건전에 입당한 당원이 5.4만명이고 새 중국이 창건된 후부터 당중앙 11기 3차 전원회의전까지 입당한 당원이 1,230.9만명이며 11기 3차 전원회의부터 18차 당대회전까지 입당한 당원이 5,980만명이고 18차 당대회이래 입당한 당원이 2,810.8만명이다.

당원의 직업. 노동자(비전업기술일터)가 663.9만명, 농·목·어민이 2,614.4만명, 기업·사업단위·사회조직 전문기술일터가 1,639.4만명,

기업·사업단위·사회조직 관리일터가 1,156.3만명, 당정기관 사업일터가 759.2만명, 학생이 262.2만명, 기타 직업 인원이 784.9만명, 퇴직인원이 2,146.9만명이다.

2. 당원 발전 상황
2024년에 당원 213.1만명을 발전시켰다.

발전시킨 당원의 성별, 민족, 나이와 학력. 여성 당원 97.9만명을 발전시켰는데 46.0%를 차지한다. 소수민족 당원 22.3만명을 발전시켰는데 10.5%를 차지한다. 35세 이하 당원 178.4만명을 발전시켰는데 83.7%를 차지한다.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 115.9만명을 발전시켰는데 54.4%를 차지한다.

발전시킨 당원의 직업. 노동자(비전업기술일터)가 14.9만명, 농·목·어민이 34.6만명, 기업·사업단위·사회조직 전문기술일터가 29.9만명, 기업·사업단위·사회조직 관리일터가 22.1만명, 당정기관 사업일터가 10.1만명, 학생이 81.2만명, 기타 직업 인원이 20.3만명이다. 생산·사업 일선에서 당원 112만명을 발전시켰다.

3. 당내 표창 상황
2024년 전국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진기층당조직 17.5만개를 표창하고 우수공산당원 72.8만명을 표창했으며 우수당사업일터 24만명을 표창했다. 1년내에 '영광제당 50년' 기념장을 89.4만개 수여했다. / 신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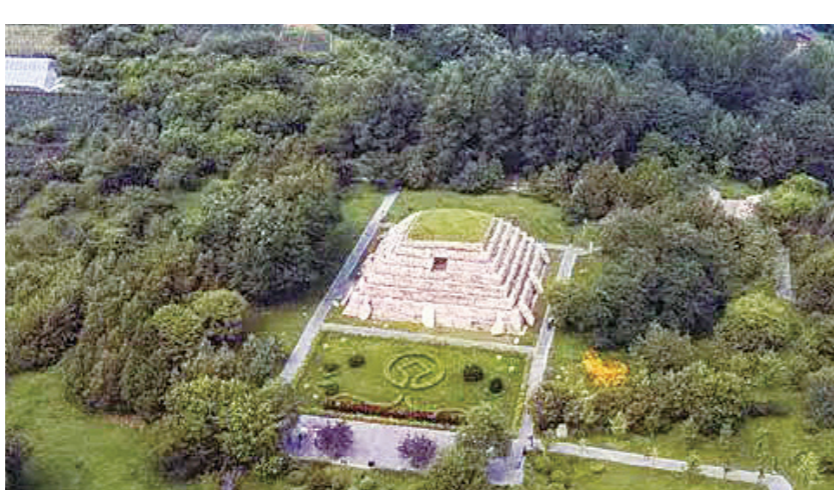


최근, 장춘시 이도구 길림가두 열전사회구역은 중국공산당 창건 104 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사회구역광장에서 '당의 은혜를 노래하고 초심을 지키며 작풍을 강화하는' 문예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합창, 무용, 시랑송 등 형식을 통해 당의 빛나는 로정을 보여주고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당원과 대중들의 정서를 불러일으켰으며 분발전진하는 힘을 결집시켰다. / 길림일보

연길, 메이구, 인도, 집인, 둔회, 훈춘

전국 100강 명단에 길림성 6개 현시 입선

최근 메디안(迈点) 연구원이 2개의 전국 현역 문화관광 융합 100강 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의 연길시 등 6개 현, 시가 입선되었다. 그 중 연길시, 매하구시와 안도현이 각기 전국 현역 문화관광 융합 종합경쟁력 100강의 16위, 23위, 56위에 선정되었고 집안시, 둔화시, 훈춘시가 각기 전국 현역 문화관광 융합 발전잠재력 100강의 4위, 7위, 98위를 차지했다.



최근년간 연길시는 '민속문화 + 특색미식 + 녹색건강양생 + 빙설관광'을 핵심으로 문화관광의 심층적인 융합발전 경로를 적극 모색하여 현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의 같은 폭의 공동진보를 추동했다. 지난 5.1 련휴 기간에 연길시의 국내외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77.8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관광수입은 15.5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최근년간 매하구시는 해풍호, 동북불야성, 매소야성광화해(梅小野星光花海), 지복촌, 오구산관광휴양지 등이 련이어 건설되면서 국가전역관광시범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가장 아름다운 중국 관광지'라는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동북불야성관광지는 '제1진 국가급 야간문화관

크고 작은 하천이 88개 있고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 3강의 원천지다. 삼림피복률이 85%에 달하고 공기질은 일년 내내 1급이다. 립방센터메타당 산소음이온 함량이 10만+에 달한다. 1년 평균기온이 4.3℃, 여름 평균기온이 19.3℃로 이상적인 피서천국이다.

집안시는 길림성의 최남단, 압록강 중류에 위치했으며 조선과 강 하나를 사이두고 있다. 길림성 남쪽으로 개방의 중요한 문호와 창구이며 G331 로녕 방향에서 길림성에 들어오는 첫번째 역이다. 203.5킬로미터의 '변경동맥'은 고구려왕성 유적, 압록강 곡면, 오녀봉 원시림을 핵심으로 '천년 문명 유전자'와 '원생대

강산 서사시'를 련결해 관광객들이 지적에서 역사를 료해하고 자연에 취하는 몰입형 체험장이기도 하다.

둔화시는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적 바탕이 깊다. 룡정신문화관광지는 유구한 특색 문화와 시와 그림과 같은 생태문화가 서로 어울려 경치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독특한 매력을 가진 복합형 문화경관을 이루었다. 안명호 습지는 둔화시의 보물도 전망대에서 호수와 산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순간의 장려한 경치를 포착할 수 있다. 중성촌에서는 푸른 기와와 흰 벽, 처마가 늘어진 조선족 특색 민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족의 독특한 민속풍토를 직접 체험하고 중국조선족의 민족문화, 민속풍토와 현대문화의 완벽한 융합을 보면서 중화문화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훈춘시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중·로·조 3국 접경에 위치한 변경도시로서 최근년간 시중 문화관광 융합, 상호 촉진의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관광+'의 심층 융합 모식을 전력으로 구축하여 '삼국성경 피서승지', '바다를 바라보며 훈춘에서 킹 크랩과 만나', '범과 표범의 고향, 절세전국' 등 독특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창출했다. 천혜의 지리적 위치, 량질의 풍부한 관광자원, 다양한 관광상품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 길림일보

동북 주요 도시⇌북경 열차 운행 시간 단축

6월 26일 중국 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가 따르면 안전기준 시범로선 건설, 련합 조정 테스트와 협수평가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오늘(7월 1일)부터 북경⇌할빈 고속철도 북경⇌심양 구간 부후호 동력분산식 열차가 상시적으로 시속 350킬로미터 고표준으로 운행됨으로써 동북지역 주요 도시와 수도권 련행 시간이 한층 더 단축되었다.

북경⇌할빈 사에 따르면 안전기준 시범로선 건설, 련합 조정 테스트와 협수평가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오늘(7월 1일)부터 북경⇌할빈 고속철도 북경⇌심양 구간 부후호 동력분산식 열차가 상시적으로 시속 350킬로미터 고표준으로 운행됨으로써 동북지역 주요 도시와 수도권 련행 시간이 한층 더 단축되었다.

이를 계기로 철도부문은 새롭게 9조의 부후호 스마트 동력분산식 열차를 투입했는데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이 적으며 운행 시간이 짧은 대표적 열차의 운행수가 대폭 증가했다. 북경⇌할빈 고속철도 북경⇌심양 구간에 배치한 표준열차는 56편으로 현재보다 24편 증가했다. 묵단강, 단둥에서 처음으로 북경을 출발역과 도착역으로 하는 표준열차가 운행되며 철령, 사평, 본계 등 도시에 처음으로 북경

표준열차가 정차한다. 북경⇌할빈 고속철도 표준열차는 처음으로 북경 서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부신, 봉성 등 현급시의 열차 정차 회수가 40회 이상으로 증가했다. 오늘부터 북경에서 부신, 심양으로 오는 열차는 가장 빨라 각기 2시간, 2시간 29분이면 도착하여 이전보다 각각 19분, 15분 단축되었다. 북경에서 철령, 사평, 장춘, 할빈까지의 최단 운행 시간은 각기 2시간 46분, 3시간 14분, 3시간 36분, 4시간 33분으로 이전보다 각기 44분, 53분, 14분, 14분 단축되었고 북경⇌할빈 고속철도를 거쳐 기타 로선으로 운행되는, 북경에서 본계, 단둥, 묵단강까지의 최단 운행 시간은 각기 3시간, 3시간 47분, 6시간 12분으로 이전보다 각기 1시간 7분, 1시간 7분, 31분 단축되었다. / CCTV 넷